2012. 7. 23 Vol. 30

# 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## 주요 농정 이슈

농지법령(법, 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안 주요 내용

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

## 거시경제 동향

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

## 기획 정보

바이오연료 관련 주요 쟁점

## 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## 연구 지원 정보

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

·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동 향 분 석 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| 주요 농정 이슈_1 | 농지법령(법, 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안 주요 내용 |
|---|---|

※ 본 자료는 7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지임대차 기간 최소한 3년 보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## ❑ 농지임대차 규정 신설

❍ **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**으로 정하도록 함(법 제24조의2 신설)

- 임대인이 징집, 질병, 취학, 부상(3개월이상),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❍ **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도입**(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- **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**에도 임차인이 시·구·읍·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,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**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**할 수 있도록 함.

❍ **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**(법 제24조의3 신설)

-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하도록 함.

## ❑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 완화

❍ **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**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❍ **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**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, 보건지소,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.

## ❑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

❍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%인 가산금을 1%만 납부

❍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

## 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

❍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**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를 청구**할 수 있도록 함.

- 매수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.

## ❑ 담보농지 취득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

❍ 농업인에 대한 자금융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추가

## 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개선

❍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확인사항 중 '신체적인 조건'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요인 철폐

## ❑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

❍ **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**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농지의 **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**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해당 농업인을 대리경작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.

❍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함.

❍ 토지사용료의 연체이자율 완화(연리 25% → 12)

| 주요 농정 이슈_2 |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|
|---|---|

※ 본 자료는 7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」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## ❑ 말산업 육성의 필요성

❍ **말산업은** 생산·육성·유통·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업·농어촌과 관련이 깊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데도, **그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발전에 한계**

❍ 말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(1~3차 산업)인데도 국민 관심이 낮고, **산업화 초기 단계로 인프라 등 산업 구조가 취약**

❍ 따라서 시장개방 가속화, 경제성장에 따른 승마수요 증가 등에 맞춰 **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을 육성시켜 농촌 대체 소득원으로 발전**시킬 필요성 대두

-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등

❍ 아울러 승마 활성화·연관산업 발전 등 말산업 육성을 통해 말산업의 핵심 동력인 건전 경마 문화 조성에도 일조 필요

## ❑ 세부과제별 주요 내용

### 1. 말산업 인프라 조성

❍ **(시설 확충) 승마시설 확충 및 복합단지 조성**

- 현재 300개소의 **승마시설을 '1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** 및 거점승마센터 지정
- 농어촌 관광, 생태 관광 등과 연계한 호스랜드(horse land) 조성

❍ **(특구 지정) 지역단위 말산업의 안정적 정착·발전 위한 특구 지정**

- 요건(법 제20조)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여 재정·세제 지원

❍ **(인력 양성)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도입**

- 지정기준 마련, '13년까지 전문기관 3개소 지정 및 국가자격시험 실시

❍ (모델 정립)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 개발·보급으로 농어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 유도

## 2. 말산업 경쟁력 강화

❍ **(승용·경주마 육성)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육성 및 우수 종마 도입**

- 우수 승용마 생산을 위해 **'16년까지 전문 생산농장 100개소 육성**, 이를 위해 **시설현대화 자금 등 우선 지원**

- '16년까지 승용마 전용 조련센터 10개소 지정, 전문 훈련을 받은 말에 대해 조련인증서 발급 및 등록 관리

- 우수한 종마 및 개량을 통해 스타마(Star-馬) 생산·공급체계 구축

❍ (건전 경마)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문화 정착

- 장외발매소 운영개선으로 레저기능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

- 실명의 온라인 마권구매 및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유도

❍ **(기술개발·보험지원) 승용마에 대한 인공수정 등 기술 상용화 및 가축 공제 대상에 말을 포함.**

- 승용마 인공수정·수정란이식 시범사업(제주1, 내륙1) 실시('13)
  ※ 인공수정 수태율 : 선진국(독일) 70%, 국내 40% 수준

-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 보험비용 일부 지원 추진

## 3.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등 성장기반 구축

❍ **(승마 대중화) 승마체험 확대, 승마대회 개최 등을 통해 승마 붐 조성**

- 승마체험 기회를 '16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확대(현재 7천명 정도), 유소년 승마단 50개소 설립 및 승마체험자 중심의 승마대회 개최

- 재활승마 시범사업 등을 통한 말 매개치료 활성화 기반 구축

- 승마초보에서 숙련 단계까지 종목별 기승능력(5단계) 인증제 도입('13)

❍ (**말고기 소비 확대**) 육용마 전문농장 육성, 말고기 가공식품 개발,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말고기 소비를 확대하고, 농촌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

- 육용마 전문농장 육성,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판매장 확대, 가공식품 개발, 요리경연 대회 개최 등 추진

❍ **(수출시장 개척) 중국 등 동남아 시장 확대에 대비 지원체계 구축**

- 수출업무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홍보·마케팅 강화

❍ (관련산업 육성) 부산물 재활용 및 장구류 등 국산화 추진

- 마유(馬油)·뼈 등 부산물 활용을 통한 화장품·영양제 등 고부가가치화

## 4. 지속 성장기반 구축

❍ **(투자여건 개선)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및 진입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**

- 공공·재활·개별시설의 지원단가 현실화, 지원기준 통일, 사업자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개선

- 초지법·산지관리법 등 **관계법령 개정**을 통한 **농어촌형 승마시설 진입 규제 및 부담 완화**

- **말 관측 실시**('13), 중장기적으로 '말 자조금 제도'를 도입, **수급조절 기능 수행**

❍ **(R&D 강화) 산업화 초기인 점을 감안, 현장 중심의 R&D 우선 추진**

-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내 말산업 연구소 설치·운영('12)

❍ **(관리체계 구축) 말 방역·질병관리체계 및 말산업 통계 구축**

- 말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매뉴얼 개발·보급('13~), 일본뇌염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지원('12~)

❍ (해외협력)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교류협력 강화

| 거시경제 동향 |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|
|---|---|

※ 본 자료는 7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「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## ❑ 경제성장

❍ **금년중 GDP 성장률**은 지난 4월(3.5%) 전망보다 낮은 **3.0%를 보일 전망**(2013년 3.8%)

- 기간별로는 상반기중 2.7%, **하반기중 3.2% 수준**

❍ 지출부문별

- (**민간소비**) 실질구매력 증대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가계부채 누증,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**증가폭은 지난 전망에 비해 축소**
- (**설비투자**) 자동차, 통신 등 **비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전망**
- (**건설투자**) 비주거용부문 주도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
- (**수출**) 세계교역 신장률이 하반기중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**상반기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**될 전망

<경제성장 전망>

전년 동기대비, %

| 구분 | 2011 | 2012[e] | | | 2013[e]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상반 | 하반 | 연간 |
| GDP | 3.6 | 2.7 | 3.2 | 3.0 <3.5> | 3.7 | 3.8 | 3.8 <4.2> |
| 민간소비 | 2.3 | 1.4 | 2.9 | 2.2 <2.8> | 3.5 | 3.4 | 3.5 <4.1> |
| 건설투자 | -5.0 | -0.4 | 3.3 | 1.6 <2.8> | 3.8 | 1.0 | 2.3 <2.3> |
| 설비투자 | 3.7 | 3.7 | 7.8 | 5.8 <6.2> | 5.2 | 7.0 | 6.1 <6.4> |
| 상품수출 | 10.5 | 3.0 | 5.7 | 4.4 <4.8> | 8.1 | 9.8 | 9.0 <9.4> |
| 상품수입 | 8.7 | 2.3 | 5.3 | 3.8 <4.5> | 7.5 | 9.4 | 8.5 <9.1> |

주: < > 내는 2012.4월 전망치

## ❑ 고용

❍ **금년중 취업자수**는 **38만명 늘어나** 4월 전망(35만명)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(2013년 32만명)

- (**실업률**) **지난해(3.4%)보다 낮은 3.3%** 수준(2013년 3.2%)

<고용 전망>

만명, %

| 구분 | 2011 | 2012[e] | | | 2013[e]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상반 | 하반 | 연간 |
| 취업자수 증감[1), 2)] | 42 | 45 | 31 | 38<br><35> | 23 | 41 | 32<br><32> |
| | (1.7) | (1.9) | (1.3) | (1.6) | (1.0) | (1.7) | (1.3) |
| 실업률[2)] | 3.4 | 3.5 | 3.1 | 3.3<br><3.3> | 3.4 | 3.0 | 3.2<br><3.3> |
| (S.A.) | - | 3.4 | 3.2 | - | 3.3 | 3.1 | - |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감, ( )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%)
2) < >내는 2012.4월 전망치

## ❑ 물가

❍ **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**(연평균 기준)은 4월 전망(3.2%)보다 낮아진 **2.7%로 전망**(2013년 2.9%)

- 농산물·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·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지난 전망보다 낮은 2.2% 및 1.9%로 예상(2013 2.7% 및 2.2%)

<물가 전망>

전년 동기대비, %

| 구분 | | 2011 | 2012 | | | 2013[e]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연간 | 상반 | 하반[e] | 연간[e] | 상반 | 하반 | 연간 |
| 소비자물가 | | 4.0 | 2.7 | 2.6 | 2.7<br><3.2> | 2.8 | 3.0 | 2.9<br><3.1> |
| 근원 인플레이션 | 농산물·석유류 제외 | 3.2 | 2.0 | 2.3 | 2.2<br><2.6> | 2.8 | 2.7 | 2.7<br><3.2> |
| | 식료품·에너지 제외 | 2.6 | 1.9 | 2.0 | 1.9<br><2.2> | 2.2 | 2.1 | 2.2<br><2.5> |

주: 1) < >내는 2012.4월 전망치

## ❑ 경상수지

❍ **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**는 4월 전망(145억달러)보다 확대된 **200억 달러로 예상**(2013년 180억달러)

- 기간별로는 상반기중 135억달러, 하반기중 65억달러 수준

<경상수지 전망>

억달러

| 구분 | 2011 | 2012[e] | | | 2013[e]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연간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상반 | 하반 | 연간 |
| 경상수지 | 265 | 135 | 65 | 200 <145> | 66 | 114 | 180 <125> |
| 상품수지 | 310 | 110 | 120 | 230 <181> | 86 | 126 | 212 <187> |
| 수출(통관) | 5,552 (19.0) | 2,754 (0.7) | 2,916 (3.5) | 5,670 (2.1) | 2,929 (6.4) | 3,221 (10.4) | 6,150 (8.5) |
| 수입(통관) | 5,244 (23.3) | 2,646 (2.5) | 2,779 (4.4) | 5,425 (3.5) | 2,845 (7.5) | 3,095 (11.4) | 5,940 (9.5) |
| 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 | -44 | 25 | -55 | -30 | -20 | -12 | -32 |
| 서비스수지 | -44 | 19 | -55 | -36 | -16 | -32 | -48 |

주: ( )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%), < >내는 4월 전망치

| 기획 정보 | 바이오연료 관련 주요 쟁점 |
|---|---|

※ 본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「World Focus(2012.6.22)」 중 "바이오연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!"의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

※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및 교역 동향은 「OECD-FAO Agricultural Outlook 2011-2020」 자료 이용.

## ❑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및 교역 동향

❍ 세계 **바이오연료** 생산량은 화석연료의 **대체자원으로서 유용성이 높아짐**에 따라 **증가 추세**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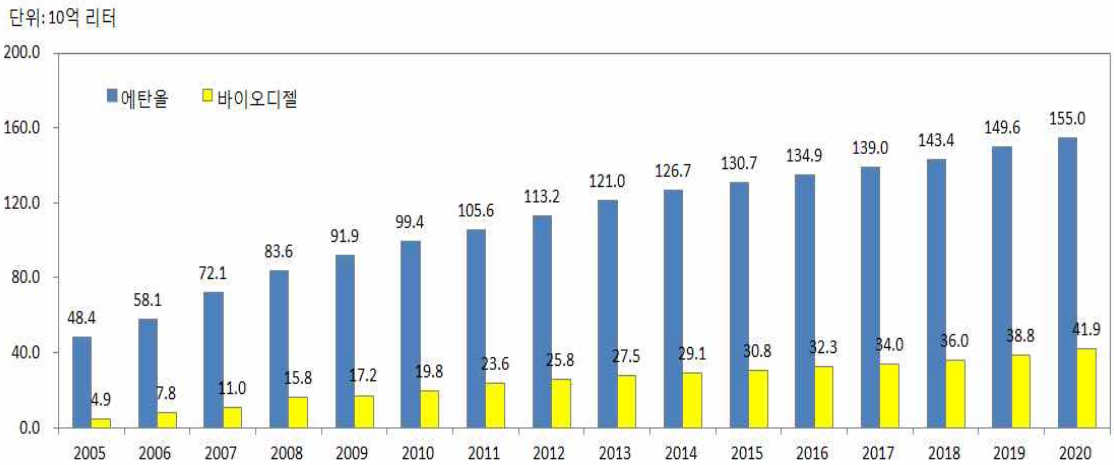
- **에탄올 생산량**은 '05년 484억 리터에서 '12년 1,132억 리터로 **연평균 12.9% 증가율**을 나타냄.

  ※ 에탄올 생산량 추이(10억 리터): ('05) 48.4 → ('08) 83.6 → ('12) 113.2, 연평균 12.9% 증가

- **바이오디젤 생산량**은 '05년 49억 리터에서 '12년 258억 리터로 **연평균 27.0% 증가율**을 나타냄.

  ※ 바이오디젤 생산량 추이(10억 리터): ('05) 4.9 → ('08) 15.8 → ('12) 25.8, 연평균 27.0% 증가

<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동향>




자료: OECD-FAO Agricultural Outlook 2011-2020.

❍ 세계 **바이오연료 교역량**은 **전체 생산량 대비 10% 내외**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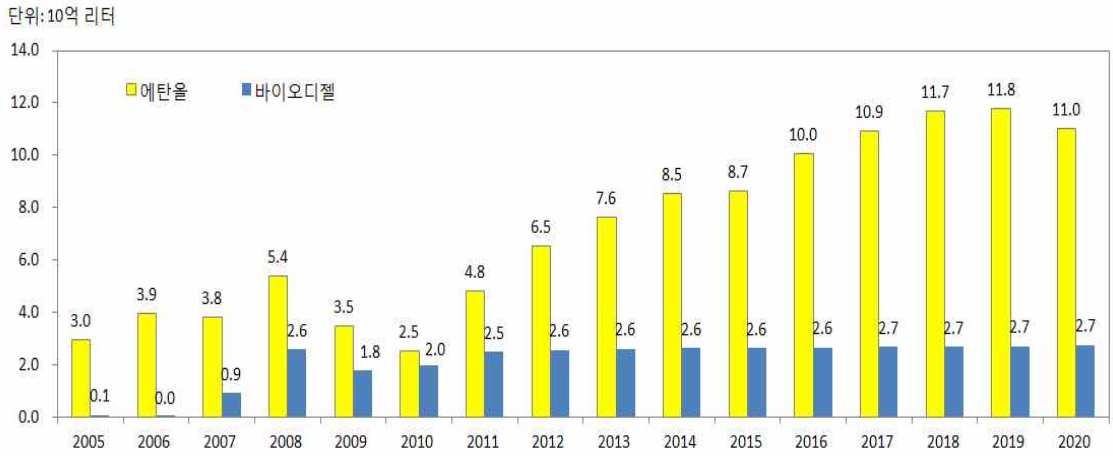
- **에탄올 교역량**은 '05년 30억 리터에서 '12년 65억 리터로 **연평균 12.0% 증가율**을 나타냄.

  ※ 에탄올 교역량 추이(10억 리터): ('05) 3.0 → ('08) 5.4 → ('12) 6.5, 연평균 12.0% 증가

- **바이오디젤 교역량**은 '05년 1억 리터에서 '08년 26억 리터로 크게 증가하였고, **최근에는 26억 리터 수준 유지**

  ※ 바이오디젤 교역량 추이(10억 리터): ('05) 1 → ('08) 2.6 → ('12) 2.6

<세계 바이오연료 교역 동향>




자료: OECD-FAO Agricultural Outlook 2011-2020.

## ❑ 바이오연료정책 결정의 핵심 이슈

### 이슈 1. 바이오연료가 에너지안보를 앞당긴다?

❍ 바이오연료 정책은 지나친 석유의존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됨. 바이오연료는 **원유 공급중단의 우려를 해소**하고 **연료 가격 안정화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

- 과거 오일쇼크의 경험,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원유 공급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최근 대체자원으로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

❍ 하지만 연료옵션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의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**액체연료(원유)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**임.

- **바이오연료 생산 확대**는 **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**에 불과함.

❍ 바이오연료가 미래 에너지안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함.

- **바이오연료의 유용성은 휘발유나 디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가**에 달려 있음.

※ 유가변동, 바이오연료기술과 사업모델 발전방향, 공급원료, 에너지, 비료, 토지를 포함한 바이오연료 생산 투입요소의 미래가격에 따라 정해지게 됨.

## 이슈 2. 온실가스 배출 · 상쇄 간 상반된 논란 지속

❍ **석유를 바이오연료로 대체**하면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**온실가스 배출을 감소**시킬 수 있으나 그 정도는 **바이오연료의 공급원료에 따라 다름.**

- 에탄올 공급원료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 효과

※ 옥수수 5% 미만, 사탕무 50% 내외, 사탕수수 90%

❍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에 따른 **토지개간, 경작지 전환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논란 가중**

- **토지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다량 방출 사례**

※ 바이오디젤 생산에 필요한 야자수 재배를 위한 토탄지대 개간(인도네시아),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목초지를 잃은 목장주들의 열대우림 개간(브라질)

→ 이로 인해 발생한 **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**시키기 위해서는 **짧게는 45년, 길게는 167년의 바이오연료 생산 필요**

## 이슈 3. 식량안보 VS 에너지 안정

❍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에 따른 **국제 식량가격 상승** 및 **타 작물의 재배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심화**

- 바이오연료 수요를 증대시키기는 정책은 공급원료가 식량작물(옥수수, 밀, 콩) 또는 비식량작물일 경우 식량가격을 직·간접적으로 상승시킴.

❍ 현재 완성단계에 있는 모든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이 **식량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**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**단기적으로 문제가 심각**함.

❍ **식량가격 상승**은 바이오연료 성장을 축소시키는 보조금 삭감 등 **정치적 압력이 가해져 바이오연료 생산의 위축**을 가져올 수 있음.

- 식량과 연료 사이의 갈등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,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을 추구하는 주요 생산국(미국, 유럽연합, 브라질 등)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임.

## 이슈 4. 바이오연료, 1세대는 어둡고, 2세대의 미래는 유망하다?

❍ **바이오연료 기술의 발전방향**은 식용 작물(옥수수, 밀, 사탕수수 등)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(1세대)에서 **셀룰로오스계(작물찌꺼기, 톱밥 등) 공급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(2세대)으로 재편**되고 있음.

❍ 셀룰로오스계 공급 원료를 이용한 2세대 바이오연료는 식량 및 연료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지만, 바이오연료로서 기술 제약이 존재

※ **(2세대 바이오연료의 장점)** ①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소량의 에너지 소요, ②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안보 강화, ③ 식량생산에 부적합한 토지 활용에 따른 식량 및 연료간의 갈등 해소

※ **(2세대 바이오연료의 단점)** ①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 분해를 위한 기술력 부족, ② 고비용

❍ **2세대 바이오연료의 생산**은 농업부문에 **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부여**하는 반면, 원료가 농업이 아닌 부분에서 투입되어 **농가의 영농활동 기회를 상실**할 수 있는 양면성 상존

- (**긍정적 측면**) 일부 계절에만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계절에 바이오연료의 원료 생산에 이용함으로서 토지이용률 증대

- (**부정적 측면**) 2세대 바이오연료 확대에 따른 1세대 바이오연료 원료 생산농가의 영농기회 박탈

| 농정 여론 동향 |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|
|---|---|

※ 본 자료는 7월 16일~20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 · 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## ❑ 잇단 FTA…와웨업계 벼랑으로

❍ 지난 6월 25일 타결된 **한·콜롬비아 FTA로 인해 절화류는 7년 이내 관세 25%가 철폐**, 이에 따라 세계 화훼 수출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**국내 화훼시장 잠식이 크게 우려**되고 있음. 또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산 절화 수입('11년 1559톤 ▸ '12년 5월 기준 1476톤) 또한 한·중 FTA 타결 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업 안에서도 소외 받는 화훼농업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FTA 대책마련이 요구됨.

자료 : 농민신문(2012.7.16).

## ❑ '동물복지 농장' 축산업계 새바람

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 **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**를 도입한 이후 올해 **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**을 진행 중에 있으며, 신청 농가 26곳을 방문 심사하여 최종 **12곳을 11일자로 인증**.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, 복지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농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. 아울러 **올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'13년 돼지, '14년 육계, '15년 한우·젖소까지 동물복지 인증제 대상 축종을 확대할 계획**에 있음.

자료 : 농민신문(2012.7.16).

## ❑ 환경부 축산규제 정책 강화 '제동'

❍ **농림수산식품부는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에 관한 환경부의 축산규제 정책에**

**강력히 대응,** 구체적으로 기존 무허가 축사도 축산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가하되,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확대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축사에 한해 축산법상에서도 허가를 해 주고, 특히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서 위치기준을 정할 경우 지자체가 제한거리를 확대할 수 없도록 축산법시행령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에 있음.

자료 : 축산신문(2012.7.18).

## ❑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 회복세 '심상찮다'

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(검역기준)은 5만5000톤으로, 전년 같은 기간 5만8000톤보다 3000톤 가량 감소했고, 이는 미국 내 광우병 발생과 수입육 재고 증가 때문으로 파악.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형 유통 매장의 **광우병 발생이후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은 지난 5월 둘째주 2억8800만 여원에서 6월 둘째주 5억9200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**에 있음. 국내에서는 **암소도태 등에 따라 하반기 한우 출하물량이 증가**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**수입 쇠고기 물량이 늘어날 경우 한우가격 하락이 우려됨.**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2.7.16).

## ❑ 다문화정책의 초기 정착지원 집중…틀 바꿔야

❍ 지난 11일 열린 '다문화정책의 주요쟁점 및 입법과제' 포럼에서 국내 다문화정책이 **이주자들의 60% 내외가 초기 정착지원 중심,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논의**, 실제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가 느끼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**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들은 언어문제**가, **5년 이상 된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문제**가 가장 높게 나타나 **중장기적으로 결혼 이주자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업지원 예산 비중을 늘리고 성장기 자녀교육을 위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**.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2.7.16).

**연구 지원 정보**

##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-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-

※ 본 자료는 7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-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-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

## ❑ 청년층(15~29세) 부가조사 결과

❍ **청년층인구는 951만 2천명**(15세이상 인구 4,151만 9천명의 22.9%임)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2천명 감소

- 청년층 중 경제활동인구(425만 3천명)와 비경제활동인구(525만 9천명)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만 2천명 증가, 11만 5천명 감소

- **청년층 고용률은 41.1%, 실업률은 8.0%**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0.2%p, 0.7%p 상승

❍ **청년층 졸업·중퇴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 분포**

- 산업별 취업 비중은「사업·개인공공서비스업」(42.2%),「도소매·음식숙박업」(22.3%),「제조업」(18.1%) 순

  **※「농림어업」비중(산업별 취업): 1.1%**

<졸업·중퇴자의 산업별 취업 분포>

단위: 천명, %

| 구분 | 2011. 5 | | | 2012. 5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졸업·중퇴 취업자 | 구성비 | 전체[1] 취업자 구성비 | 졸업·중퇴 취업자 | 구성비 | 증감 | 전체[1] 취업자 구성비 |
| < 전 체 > | 3,206 | 100.0 | 100.0 | 3,172 | 100.0 | -34 | 100.0 |
| ○농림어업 | **25** | **0.8** | **7.2** | **35** | **1.1** | **9** | **7.0** |
| ○광공업 | 604 | 18.8 | 16.8 | 575 | 18.1 | -29 | 16.3 |
| - 제조업 | 604 | 18.8 | 16.8 | 575 | 18.1 | -29 | 16.2 |
| ○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| 2,577 | 80.4 | 76.0 | 2,563 | 80.8 | -14 | 76.8 |
| - 건설업 | 108 | 3.4 | 7.2 | 118 | 3.7 | 10 | 7.2 |
| - 도소매·음식숙박업 | 703 | 21.9 | 22.1 | 707 | 22.3 | 4 | 22.3 |
| 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| 1,386 | 43.2 | 34.7 | 1,339 | 42.2 | -48 | 35.3 |
| 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| 380 | 11.8 | 11.9 | 399 | 12.6 | 19 | 11.9 |

1)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의 산업별 구성비임

## ❍ 청년층 졸업·중퇴 취업자의 직업별 취업 분포

- 직업별 취업 비중은「관리자·전문가」(31.2%),「사무종사자」(27.9%),「서비스·판매종사자」(20.7%) 순.

**※「농림어업숙련종사자」비중(직업별 취업): 0.9%**

<졸업·중퇴자의 직업별 취업 분포>

단위: 천명, %

| 구분 | 2011. 5 | | | 2012. 5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졸업·중퇴 취업자 | 구성비 | 전체 취업자 구성비[1] | 졸업·중퇴 취업자 | 구성비 | 증감 | 전체 취업자 구성비[1] |
| < 전 체 > | 3,206 | 100.0 | 100.0 | 3,172 | 100.0 | -34 | 100.0 |
| · 관리자·전문가 | 1,032 | 32.2 | 21.4 | 989 | 31.2 | -43 | 21.2 |
| · 사무종사자 | 926 | 28.9 | 16.1 | 885 | 27.9 | -41 | 16.3 |
| · 서비스·판매종사자 | 634 | 19.8 | 21.8 | 656 | 20.7 | 22 | 22.2 |
| **· 농림어업숙련종사자** | **16** | **0.5** | **6.6** | **28** | **0.9** | **12** | **6.5** |
| · 기능·기계조작종사자 | 400 | 12.5 | 20.4 | 428 | 13.5 | 28 | 20.6 |
| · 단순노무종사자 | 198 | 6.2 | 13.7 | 187 | 5.9 | -11 | 13.2 |

1)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의 직업별 구성비임

## ❍ 청년층 첫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

- 청년층 첫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은「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」(40.5%),「도소매·음식숙박업」(26.0%),「광업·제조업」(17.6%) 순

**※「농림어업」비중(산업별 첫 일자리): 0.6%**

<첫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>

단위: 천명, %

| 구분 | 2011. 5 | | | | 2012. 5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졸업·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| 구성비 | 남자 | 여자 | 졸업·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| 구성비 | 남자 | 구성비 | 여자 | 구성비 |
| < 전 체 > | 4,094 | 100.0 | 1,757 | 2,337 | 4,028 | 100.0 | 1,736 | 100.0 | 2,292 | 100.0 |
| ○ 농림어업 | 25 | 0.6 | 15 | 10 | 24 | 0.6 | 13 | 0.7 | 11 | 0.5 |
| ○ 광업·제조업 | 701 | 17.1 | 419 | 282 | 710 | 17.6 | 431 | 24.8 | 279 | 12.2 |
| ○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| 3,368 | 82.3 | 1,323 | 2,045 | 3,294 | 81.8 | 1,292 | 74.4 | 2,002 | 87.4 |
| - 건설업 | 175 | 4.3 | 109 | 67 | 165 | 4.1 | 98 | 5.7 | 67 | 2.9 |
| - 도소매·음식숙박업 | 1,048 | 25.6 | 496 | 552 | 1,049 | 26.0 | 528 | 30.4 | 521 | 22.7 |
| -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| 1,642 | 40.1 | 500 | 1,143 | 1,630 | 40.5 | 459 | 26.4 | 1,171 | 51.1 |
| - 전가운수 통산금융 | 503 | 12.3 | 219 | 284 | 450 | 11.2 | 207 | 11.9 | 243 | 10.6 |

### ❍ 청년층 첫 일자리의 직업별 분포

- 청년층 첫 일자리의 직업별 비중은「서비스·판매종사자」(29.0%),「관리자·전문가」(25.6%),「사무종사자」(25.5%) 순

※「농림어업」비중(직업별 첫 일자리): 0.4%

<첫 일자리의 직업별 분포>

단위: 천명, %

| 구분 | 2011. 5 | | | | 2012. 5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졸업·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| 구성비 | 남자 | 여자 | 졸업·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| 구성비 | 남자 | 구성비 | 여자 | 구성비 |
| < 전 체 > | 4,094 | 100.0 | 1,757 | 2,337 | 4,028 | 100.0 | 1,736 | 100.0 | 2,292 | 100.0 |
| · 관리자·전문가 | 1,036 | 25.3 | 334 | 702 | 1,031 | 25.6 | 316 | 18.2 | 715 | 31.2 |
| · 사무종사자 | 1,119 | 27.3 | 317 | 802 | 1,026 | 25.5 | 284 | 16.4 | 742 | 32.4 |
| · 서비스·판매종사자 | 1,114 | 27.2 | 480 | 634 | 1,169 | 29.0 | 525 | 30.3 | 643 | 28.1 |
| **· 농림어업 숙련종사자** | **14** | **0.3** | **9** | **6** | **15** | **0.4** | **9** | **0.5** | **5** | **0.2** |
| · 기능·기계 조작 종사자 | 485 | 11.8 | 379 | 106 | 492 | 12.2 | 400 | 23.0 | 92 | 4.0 |
| · 단순노무종사자 | 326 | 8.0 | 239 | 87 | 296 | 7.3 | 202 | 11.6 | 94 | 4.1 |

## ❑ 고령층(55~79세) 부가조사 결과

❍ 2012년 5월 현재 고령층(55~79세)인구는 1,051만 1천명으로 15세이상 인구(4,151만9천명) 전체의 25.3%임.

-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559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3만1천명, 비경제활동인구는 491만2천명으로 12만7천명 각각 증가하였음.

- 고령층 고용률은 52.3%로 전년 동월대비 1.5%p 상승하였고, 실업률은 1.8%로 0.5%p 하락하였음.

### ❍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 분포

-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 비중은「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」(32.9%),「농림어업」(21.9%) 순

<산업별 취업자 분포>

단위: 천명, %

| 구분 | 2011. 5 | | | | | 2012. 5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55~79세 취업자 | 구성비 | 55~64세 | 65~79세 | 전체[1] 취업자 | 55~79세 취업자 | 구성비 | 55~64세 | 구성비 | 65~79세 | 구성비 | 전체[1] 취업자 |
| < 전 체 > | 5,052 | 100.0 | 3,390 | 1,661 | 100.0 | 5,496 | 100.0 | 3,656 | 100.0 | 1,840 | 100.0 | 100.0 |
| ○ 농림어업 | 1,185 | 23.5 | 469 | 716 | 7.2 | 1,206 | 21.9 | 478 | 13.1 | 728 | 39.6 | 7.0 |
| ○ 광공업 | 462 | 9.2 | 374 | 88 | 16.8 | 511 | 9.3 | 416 | 11.4 | 94 | 5.1 | 16.3 |
| - 제조업 | 460 | 9.1 | 372 | 88 | 16.8 | 508 | 9.2 | 414 | 11.3 | 94 | 5.1 | 16.2 |
| ○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| 3,404 | 67.4 | 2,546 | 857 | 76.0 | 3,780 | 68.8 | 2,762 | 75.5 | 1,018 | 55.3 | 76.8 |
| - 건설업 | 349 | 6.9 | 307 | 41 | 7.2 | 382 | 6.9 | 332 | 9.1 | 50 | 2.7 | 7.2 |
| - 도소매·음식숙박업 | 992 | 19.6 | 732 | 261 | 22.1 | 1,077 | 19.6 | 772 | 21.1 | 305 | 16.6 | 22.3 |
| 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| 1,586 | 31.4 | 1,112 | 474 | 34.7 | 1,808 | 32.9 | 1,244 | 34.0 | 564 | 30.6 | 35.3 |
| 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 | 477 | 9.4 | 396 | 81 | 11.9 | 513 | 9.3 | 414 | 11.3 | 99 | 5.4 | 11.9 |

1)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의 산업별 구성비임.

## ❍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취업 분포

-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취업 비중은「단순노무종사자」(27.5%), 「농림어업숙련종사자」(20.5%)순

<직업별 취업자 분포>

단위: 천명, %

| 구분 | 2011. 5 | | | | | 2012. 5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55~79세 취업자 | 구성비 | 55~64세 | 65~79세 | 전체[1] 취업자 | 55~79세 취업자 | 구성비 | 55~64세 | 구성비 | 65~79세 | 구성비 | 전체[1] 취업자 |
| < 전 체 > | 5,052 | 100.0 | 3,390 | 1,661 | 100.0 | 5,496 | 100.0 | 3,656 | 100.0 | 1,840 | 100.0 | 100.0 |
| · 관리자·전문가 | 465 | 9.2 | 374 | 90 | 21.4 | 481 | 8.7 | 386 | 10.5 | 95 | 5.2 | 21.2 |
| · 사무종사자 | 180 | 3.6 | 155 | 24 | 16.1 | 212 | 3.9 | 187 | 5.1 | 25 | 1.4 | 16.3 |
| · 서비스·판매종사자 | 984 | 19.5 | 787 | 197 | 21.8 | 1,089 | 19.8 | 839 | 22.9 | 250 | 13.6 | 22.2 |
| · 농림어업숙련종사자 | 1,090 | 21.6 | 439 | 651 | 6.6 | 1,124 | 20.5 | 451 | 12.3 | 673 | 36.6 | 6.5 |
| · 기능·기계조작·종사자 | 974 | 19.3 | 821 | 152 | 20.4 | 1,076 | 19.6 | 912 | 25.0 | 164 | 8.9 | 20.6 |
| · 단순노무종사자 | 1,359 | 26.9 | 813 | 547 | 13.7 | 1,514 | 27.5 | 881 | 24.1 | 633 | 34.4 | 13.2 |

## ❑ 참고: 조사 개요

❍ 청년층 부가조사

- 조사대상: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현재 만 15~29세 연령층
- 조사실시시기: 2012. 5. 20.~5. 26.
- 조사항목: 19개 항목

- 최종학교 입학·편입시기 및 졸업·중퇴·휴학시기
- 최종학교 학제
- 최종학교 재학 중 휴학유무 및 사유
- 최종학교 편입여부 및 시기
- 학교교육 외 직업훈련 경험여부 및 시기
- 직업훈련 기관
- 취업시험 준비 여부 및 분야
- 재학·휴학 중 직장체험(취업포함) 유무 및 형태
- 재학·휴학 중 직장체험(취업 포함) 기간
- 졸업·중퇴 후 취업횟수
- 첫 직장 종사상 지위
- 첫 직장 취직·이직시기
- 첫 직장 이직사유
- 첫 직장의 산업
- 첫 직장의 직업
- 직장 취업경로
- 전공과의 일치정도
- 미취업기간
- 미취업 기간 동안 활동상태

❍ 고령층 부가조사

- 조사대상: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현재 만 55~79세 연령층
- 조사실시시기: 2012. 5. 20.~5. 26.
- 조사항목: 14개 항목

- 경제활동상태
-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속기간
- 그만둔 사유
- 구직활동 경험 및 횟수
- (비구직자) 비구직 사유
- (구직경험자) 주된 구직경로
- 직업훈련 경험여부 및 훈련기관
- 취업경험 및 횟수
- (취업경험자) 최근 취업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
- 향후 취업의사
- 일자리 선택기준
-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
- 희망임금수준
- 연금수령여부

**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**